

“사랑의 마음 바탕으로 보육 이뤄져야”

도내 보육시설 발전 산파역 ... 32년 5개월간 보육업무 몸담은 산증인

‘국민포장’ 수상 이연순 천진어린이집 원장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그 위에 교육적인 것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진어린이집의 원훈도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6일 정선에서 열린 2011년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보육사업 정부포상 부문 ‘국민포장’을 수상한 천진어린이집 이연순 원장(55세, 사진)은 32년 4개월간 보육업무에 몸담아 오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1979년 아야진 셋별어린이집 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그녀는 1991년 셋별유치원 원장에 오르는데 이어 1996년 천진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초대 원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고성지역 보육계의 산증인이다.

이원장은 고성군 보육시설연합회장과 강원도 보육시설연합회 특별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보육시설을 108회나 직접 방문해 평가인증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고성지역 어린이집이 100% 평가인증을 받고, 강원도가 3년

연속 전국 1위 평가를 받는데 산파역을 했다.

또 도내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가입을 적극 권유한 결과 원장들의 인식개선과 가입을 증대를 가져왔으며, 농어촌 부모와 맞벌이 부모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을 전개해 전체 시설의 24%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15회에 걸쳐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문화 가족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증진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찾아가는 육아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이원장은 자신의 전공분야인 보육활동 외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 ‘나눔천사’라는 칭찬까지 받고 있다.

보육교사 시절이던 80년대 초반부터 교사회를 조직해 일일찾집을 운영하며 매년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불우아동 의복전달, 군장병 위문품 전달 등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 원장 임용 이후에는 매년 300명 가

량의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거나 양로원을 직접 방문해 재롱잔치를 개최했다. 2006년부터는 보육인 및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25명에게 장례비 총 2천 4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6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백만원의 성금과 쌀 1,960kg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공적을 쌓은 이원장도 보육인에 대한 복지 미흡 등을 이유로 한때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오늘날까지 보육인의 외길을 걸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사 등 보육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이 월급받고 어떻게 생활하나 하는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며 견뎌왔습니다.”

어린이집을 거쳐간 아이가 성인이 되어 찾아오거나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원장은 “보육인은 한마디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며 “부모의 마음 자세로,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툽밥 표고버섯’ 재배로 귀농의 꿈 실현

고성민음표고버섯 문종복 대표 ... 7가구 고성군 정착 기여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면, 농촌을 떠났던 30~40대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일대 야산을 일궈 ‘표고버섯 툽밥재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귀농의 꿈을 심어주고 있는 고성민음표고버섯 문종복 대표(61세, 사진).

성천리 1만5천여평의 농장 부지에 100평 규모 비닐하우스 10동을 운영하며 월 10톤 이상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그는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속초시민교회 목사이기도 한 문대표는 선교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참나무 툽밥을 이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방식을 알게 됐으며, 대기업에 다니던 장남을 설득해 귀농시킨 뒤 함께 일하고 있다.

종균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손상이 많아 약 2억원의 손실을 본 문대표는 중국에서 종균을 직접 만들어 ‘배지’ 상태로 국내에 들여와 하우스에서 숙성시키는 방식을 선택해 성공을 거뒀다. 배지(배양지)란 영양물질을 속에 담아 인공적으로 미생물을 기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그는 표고버섯 툽밥재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배지’ 생산을 위해 중국에 50만평 규모의 공장을 세웠으며, 이곳에서 국내로 들여온 ‘배지’를 성천리 농장에서 숙성시킨 뒤 강릉지역 농협공판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표고버섯 툽밥재배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성군으로 귀농해 살고 있다. 현재 일곱 가정이 고성군에 정착했으며, 앞으로 12가정이 더 정착할 것이라고 한다.

문대표는 “30~40대 젊은이들의 귀농을 많이 시키는 전국 최고의 단지로 성장시키고 싶다”며 “귀농인이 많아지면 고성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만큼, 이들이 농가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경기도 파주시 소재 판문각을 찾은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 안보견학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는 이번 행사에서 천안함, 땅굴, 비무장지대, 판문각 등을 돌아보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장병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다.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관계자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들이 벌써 60~70대가 되었다”면서 “먼저 간 선배배님들의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대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했다.

백옥식 시민기자